

공손성 이론과 언어 교육

이혜용(이화여대)

1. 들어가며

Lakoff(1973, 1975), Brown and Levinson(1978, 1987), Leech(1983)이 제안한 보편적 공손성 이론은 최근까지 한국어 공손 현상을 연구할 때 기본적인 분석 틀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성 이론은 국어학을 비롯하여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등 공손 현상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브라운과 레빈슨이 주장한 공손성 모델은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에 기반하여 언어 행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비판받아 왔다(Wierzbicka 1985, Matsumoto 1988, Ide 1988, 1989, Gu 1990, Kasper 1990, Fraser 1990).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성 전략¹⁾이 과연 언어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Matsumoto 1988), 화자와 청자의 개인적인 맥락만 고려한 이들의 이론은 개인보다 사회의 지향점이 행위의 규범이 되는 비서구(非西歐) 문화의 공손 행위를 설명하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브라운과 레빈슨이 주장한 인간의 체면 유지 욕구나 공손성 이론의 보편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²⁾ 그러나 브라운과 레빈슨의 이론을 비판한 논의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마다 체면의 개념이나 체면위협 행위의 종류, 선택하는 공손성 전략, 언어적 표현 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³⁾

이에 이 연구에서는 브라운과 레빈슨이 주장한 공손성 이론의 보편성은 인정하되 한국어 공손성 현상의 개별적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틀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공손성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토대로 공손성 이론의 기반이 되는 ‘체면’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한국어의 공손성 유형을 구분해 볼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어 공손성 연구에서 그동안 다소 무비판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브라운과 레빈슨의 이론을 검토해 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⁴⁾ 또한 한국어 공손성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해 봄으로써,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화법/말하기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을 선택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⁵⁾

1) 브라운과 레빈슨(1987)은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되는 영어, 남부 인도에서 사용되는 타밀어,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마야 인디언에 의해 사용되는 트젤탈어의 모어 화자들이 유사한 언어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손성의 보편성을 주장하였다.

2) Guy cook(2003:61)에서는 언어의 공손성 원리 자체는 언어 보편적이라고 주장한다. 언어마다 실현 모습들은 서로 달라도 의사소통을 위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다는 점도 공손성 이론의 보편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

3) 예컨대 Ide(1988)은 일본인의 공손성 전략과 언어적 형태는 개인의 합리성이 아니라 관습성(conventionality)의 결과라고 지적하였고, Gu(1990)는 중국어의 공손성은 브라운과 레빈슨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례로 중국 문화에서 ‘초대’나 ‘사과’는 청자의 소극적 공손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례를 제시하였다.

4) 박소연(2017:75)은 한국어 공손성 연구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는데, 국내 공손 전략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해 온 점을 비판하였다.

5) 국어교육은 언어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실제 사용되는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화용론이나 담화, 텍스트학은 그러한 능력을 현상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의 선택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임권택 2003:98).

2. 공손성에 대한 논의점

2.1. 공손성의 개념과 특성

일상어에서 ‘공손(恭遜)’이란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 의하면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 일곱 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 진지 드셨어요?”라며 존댓말을 하는 모습, 고분고분하게 말하는 태도 등에서 자연스럽게 ‘공손함’을 떠올릴 수 있다. 일상어에서 공손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예의범절’이나 ‘겸손한 태도’, ‘어른에 대한 공경’ 등 상대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특히 경어법이 발달한 한국어의 경우, ‘공손’은 연장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대할 때 요구되는 사회 규범적인 성격이 짙다. 그러나 화용론의 원리인 ‘공손성(Politeness)’이란 예의범절이나 사회 규범의 차원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구분될 필요가 있다.⁶⁾

공손성이란 의사소통의 원리 중 하나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 것과 관련된 언어 행위를 말한다.⁷⁾ 그러므로 연장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 사적인 관계나 공적인 관계 등 언어 사용을 통해 인간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고 싶은 모든 대상에게 적용된다.

또한 공손성은 화용적인 현상이므로 고정된 표현에 의해 공손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맥락에 따라 다양한 표현들이 선택되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통해 화용론의 원리로서 공손성 현상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

(1) (수업에서 같은 조가 된 두 사람)

- 1 A: 안녕하세요. 저는 국문과 신입생, 권재이라고 합니다.
- 2 B: 어! 저도 신입생이에요. 영문과 장제인이라고 해요.
- 3 A: 지랑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 4 B: 그러게요. 근데 말투를 들으니 혹시 부산이 고향이세요?
- 5 A: 어? 맞아요, 부산! 어떻게 알았지? 고향이 부산이에요?
- 6 B: (웃으며) 나도 부산! 친구야, 말 뇌라. 부산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데?
- 7 A: 나, 금정 여고. 근데 재수했다.
- 8 B: 아, 선배님이시네요! 언니, 엄청 동안이세요!

- 6) 화용, 즉 언어 사용의 원리로서 ‘공손성(politeness)’의 개념은 한국어 문법 현상인 ‘경어법’ 개념이나 ‘공손(恭遜)’의 사전적 정의와 맞물려 사회규범적인 것으로 오해되기 쉬우므로 이해영(1996)에서는 ‘Politeness’를 ‘부담줄이기’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politeness의 번역어는 그동안 이론서와 선행 연구들에서 ‘공손성’, ‘공손 표현’, ‘공손’ 등으로 다양하게 쓰여 왔다. 본고에서는 일반어인 예의범절이라는 사회 규범으로서의 ‘공손’과 개념적 차별을 두고자 화용론의 원리로서의 Politeness를 ‘공손성’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공손 표현’은 의사소통에서 공손성이 표현되는 언어적/비언어적인 모든 수단들을 일컬을 때 사용하기로 하였다. 박소연(2017)도 본고의 용어 사용과 같은 견해를 펴려하였으나, 공손 표현 \subset 공손성 \subset 공손의 포함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선 공손성은 화용의 원리이므로 상황 맥락과 관계 없이 어떠한 공손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공손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기에 ‘공손 표현 \subset 공손성’의 포함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손성’은 화용의 원리를 이르는 개념이고, ‘공손’은 ‘예의 바른 말이나 태도’를 이르는 표면적인 발화행위이므로 이 둘을 같은 선상에서 포함 관계를 따진다는 것이 어려우며, 공손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예의 바른 말이나 태도가 아닌 경우도 있기에 ‘공손성 \subset 공손’의 포함관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 7) Lakoff(1975:64)는 공손성이란 개인적인 상호작용의 마찰을 줄여나가기 위해 사회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하였고, Brown and Levinson(1987:1)은 공손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았으며, 공손성이란 공적인 외교 외례에서처럼 그것을 무장해제하려고 할 때 공격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잠재적으로 공격적인 정당들 간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였다. Leech(1983:104)에서는 공손성이 그라이스의 협력의 원리와 Ide(1989:225)에서는 공손성을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언어 사용을 말하며, 자신의 의도를 청자가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도적인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화자가 각각의 개별적 대화 상황에서 기대되거나 규정된 언어규범에 맞는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1)은 학기 초에 어떤 수업에서 같은 조가 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며, 이들의 의사소통 목적은 같은 조가 되었으므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것, 즉 ‘자기소개’를 하며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있다. 처음에 이들은 공적인 상황에 맞는 경어법을 사용하여 대화를 시작한다. 그러나 의사소통 과정 중 이름, 말투, 고향 등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공통점들을 반기는 표현들을 하며((1)-2, (1)-3), (1)-5부터는 경어법 등급을 낮추고, (1)-6에서는 ‘친구야’라는 호칭 사용과 함께 동향임을 드러내는 부산 방언을 써서 친근감을 드러낸다.⁸⁾ 그러나 (1)-7에서 A가 재수를 하여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B는 (1)-8에서 ‘언니’라는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의 얼굴이 ‘동안’이라고 ‘찬사’하며 친근감과 호감을 드러낸다. 그러는 한편 다시 경어법 등급을 높여서 ‘선-후배’라는 사회적 거리를 재조정한다.

(1)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자기를 소개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문법, 어휘, 담화 차원에서 다양한 언어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문법 층위에서는 경어법을 조정하고, 어휘 층위에서는 호칭을 달리하며, 담화 차원에서는 ‘찬사’ 행위를 하고,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부각시키는 등의 노력을 보인다. 여기서 어떠한 언어적 장치로 ‘공손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는 대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이 되며 그들이 속한 집단의 언어 문화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에서 무엇이 공손한 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발화를 하는 개인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대화라는 상호작용 속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고, 그 기준점은 대화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 특성으로 공손성은 간접 발화 표현이나 경어법 사용 등 고정된 표현으로 담보되지 않는 유동성을 지닌다. 이는 감사 인사 등의 예외 바른 표현들에서도 예외 없이 드러난다.⁹⁾

(2) (유치원에서 집에 온 일곱 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 1 아이: 엄마, 목 말라!
- 2 엄마: (우유를 주면서) 응. 이거 마셔.
- 3 아이: 엄마, 오늘도 항상 이렇게 우유를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 4 엄마: 응?

(2)는 유치원에서 돌아온 일곱 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우유를 달라고 요청하자 엄마가 이를 챙겨주는 상황이다. 그런데 (2)-3에서 아이가 평소에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사’ 표현을 정중히 하자, 엄마는 (2)-4에서 “응?”하며 의아해 한다. 이는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따라 주는 행위가 정중한 감사 인사를 받을 만한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사’나 ‘찬사’처럼 언어 행위 그 자체가 공손하거나 표현이 정중하다고 해서 반드시 공손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조롱’이나 ‘비난’처럼 언어 행위 그 자체가 불손하다고 해서 반드시 공손성을 실현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¹⁰⁾ 공손성은 언어 행위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 참여자들의 친밀감이나 사회적 지위와 권한, 사건의 부담감 등 상황 맥락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 상호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8) ‘웃음’을 비롯한 제스처, 눈짓 등의 비언어적 요소와 말하는 어조, 높낮이, 목소리의 크기 등의 준언어적 요소 또한 언어적 공손성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본고에서는 언어 표현으로 발화된 형태에만 국한하여 언급하였다.

9) Leech(1983)은 특정 유형의 화행이 본질적으로 공손하거나 무례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대화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화에서의 공손성은 어휘나 표현에 따라 정해지는, 형태에 결속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상호행위의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소영2020:112).

10) 주로 젊은 남성 사이에서 “암마! 이 새끼” 등의 비속어나 별명, 욕설, 농담 등을 사용하여 서로에 대해 친밀감을 표현하며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예) (군에서 제대한 친구에게, 반가워하며) 암마! 이 새끼 오랜만이네! 살아 있었구나!

2.2.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성 이론에 대한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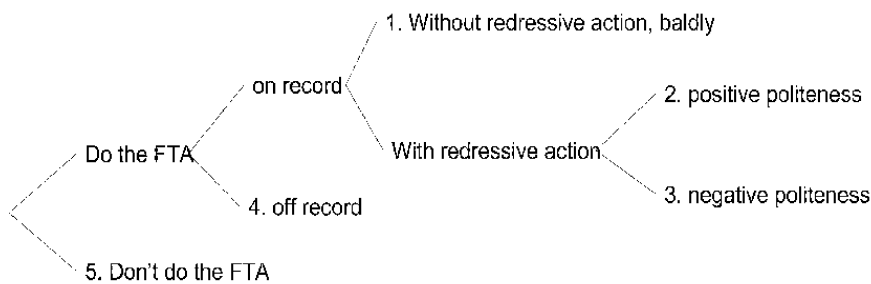
한국어 공손성 전략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브라운과 레빈슨(1987)의 공손성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화법 교육에서도 이들의 이론은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와 교육에 토대가 되는 이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 한국어의 공손성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¹¹⁾

1)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성 이론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성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서로 지켜주고자 하는 ‘체면(face)’ 개념에 있다. ‘체면(face)’은 브라운과 레빈슨이 사회학자인 고프만(Goffman 1967)에서 가져온 개념으로, 고프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공적 자아상(public self-image)’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체면’이라고 정의한다. 브라운과 레빈슨은 사회의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을 할 때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협력한다고 가정했다.¹²⁾

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체면의 유형을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과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 두 가지로 하위 분류하였다. ‘소극적 체면’이란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타인에 의해 방해받기 싫어하는 욕구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원하는 욕구를 말한다. 반면 ‘적극적 체면’이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받아들여 주고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바람을 표현한다.

브라운과 레빈슨은 모든 대화, 즉 모든 언어 행위는 잠재적으로 대화 참여자들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다(face threatening acts: FTAs)라고 가정하고,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한 다섯 가지의 공손성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것이 한국어 공손성 연구에서 많이 언급되어 쓰이는 이른바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성 전략’이다.



11)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국어 공손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박소연(2017)에서는 브라운과 레빈슨(1987)의 공손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 연구들에서 이들의 이론을 그대로 한국어 공손성 연구에 대입하여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선행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박소연 2017:73).

12) 브라운과 레빈슨은 대화할 때 자신과 대화 상대방의 체면을 지키고자 하며, 합리적으로 전략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을 ‘MP(model person)’이라고 명명하고, 이들은 [그림 1]과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발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나와 상대방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합리성’을 지니고 대화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브라운과 레빈슨의 MP는 지극히 이상적인 대화 참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Possible strategies for doing FTAs (Brown and Levinson 1987:69)

브라운과 레빈슨이 위의 그림의 제목으로 붙인 “Possible strategies for doing FTAs”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공손성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반대로 체면위협행위가 될 수 있는 가능한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브라운과 레빈슨이 대화 행위 자체를 잠재적인 체면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그들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그림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시도하고자 할 때의 프로토콜을 보여주기도 한다. 의사소통을 하려는 화자는 제일 먼저 자신의 발화가 체면을 위협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체면 위협의 정도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화자는 “5. Don't do the FTA”를 택한다. 상대방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 즉 의사소통 행위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누군가에게 욕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으나 꼭 참고 아무 말도 안 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 대화를 시도한다면, 화자는 자신의 대화 시도가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Do the FTA)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공개적으로 표현할 것인가(on record) 아니면 암시적으로(4. off record)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로 했다면, [그림 1]에서 1번부터 3번까지의 전략을 체면 손상에 대한 위협도에 따라 선택한다. 브라운과 레빈슨은 체면 손상에 대한 위협도는 1에서 5로 올라갈수록 커진다고 보고, 공손성은 이러한 체면 위협 정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브라운과 레빈슨(1987)에 따르면 공손성 전략 중 1번인 완전 공개 전략이 가장 덜 공손하고, 2. 적극적 공손 전략, 3. 소극적 공손 전략, 4. 비공개 전략 순으로 점점 더 공손하다고 할 수 있다.

2) 서구 편향적인 관점에서 기술된 이론

브라운과 레빈슨(1987)의 공손성 이론은 상호작용의 중심이 개인이 되는 서구의 사회 문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집단 구성원이 상호작용의 기본이 되는 비서구 문화의 공손성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비판받아 왔다(Wierzbicka 1985, Matsumoto 1988, Ide 1988, 1989, 2006, Gu 1990, Mao 1994, Kasper 1990, Fraser 1990).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운과 레빈슨이 공손성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상정한 ‘MP(model person)’는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공손의 전략들을 선택하는 이상적인 화자를 뜻한다. 이들은 이러한 개인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공손성 모델을 세웠다. 그러나 MP는 비서구권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이데(1988)에서 지적되었다. 이데(1988)은 일본어의 공손성 전략과 형태는 항상 합리성의 원리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없고, ‘관례(conventionality)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성 이론으로는 일본처럼 비서구권의 집단 문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Ide의 지적은 브라운과 레빈슨이 주장한 공손성 이론의 준비 조건 자체를 흔드는 것으로, 각 언어권의 사회문화에서 인간의 언어 행위가 개인의 합리적 이성의 판단에 기반하여 수행되는 경향이 크지, 아니면 사회문화의 관례를 따르는 경향이 크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둘째, 체면의 개인적 속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서구의 개인주의에 기준을 둔 것이므로 이 이론은 편향되었다고 비판하였다(Wierzbicka 1985, Mao 1994, Leech). 브라운과 레빈슨이 ‘체면’의 개념을 ‘개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차용한 고프만(1967)의 ‘체면’과도 개념 차이가 있는 것에서부터 드러난다. 고프만은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속성으로 본다. 따라서

체면이란 ‘공적인 대인관계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사회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브라운과 레빈슨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주장하는 공적인 개인의 이미지’라고 정의함으로써(브라운과 레빈슨 1987:61), 체면이란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이 만들고 싶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거나 인식시키고 싶은 이미지로 해석한다.

집단주의에 기반을 둔 비서구 사회에서 ‘체면’의 개념은 브라운과 레빈슨이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이데(1982, 1989, 2006)의 일련의 연구들과 Gu(1990)에서 주장되었다.¹³⁾ 이들의 논의를 통해 비서구 문화에서 공손성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를 추출해 낼 수 있다.

(3) 비서구문화-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공손성

a.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가진 사회적 의무나 위치, 역할이 중요하다.

b. 개인이 이를 인식하고 식별함으로써 공손성이 실현된다.

셋째, 브라운과 레빈슨이 중요하게 생각한 ‘소극적 체면’은 모든 문화권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일본어와 중국어에서는 소극적 체면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이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Matsumoto 1989, Ide 1989, Gu 1990, Mao 1994). 브라운과 레빈슨은 일본 문화가 소극적 공손성을 지향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본 사회에서는 서구의 개념처럼 타인에 의해 방해받고 싶지 않은 욕구가 아니라 집단 내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기에 ‘타인에 의해 수용되고 싶은 욕구’가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Matsumoto 1989, Ide 1989).

넷째, Matsumoto(1989)는 경어법이 있는 일본어의 경우 사회적이고 문법적인 표현 방식이 있으므로 체면위협 행위와 아닌 것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구분점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화자가 언어 전략을 선택할 때, 개인의 의지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미 정해 놓은 경어법에 따른다는 것은, 이미 화자가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사회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성 이론은 언어 보편적 이론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비서구권 문화에 속하는 언어의 공손성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성 이론의 토대가 되는 ‘체면’ 개념을 독립적이고 자율권이 존중되는 ‘개인적 체면’의 관점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역할에 따라 인정받고 성취되는 ‘사회적 체면’의 관점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 공손성 현상을 보는 틀이 달리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서구문화에 속하는 한국 역시 공손성 현상을 적합하게 설명하기 위한 틀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다음 장에서 이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3. 한국어 공손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틀

이 장에서는 한국어 공손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브라운과 레빈슨(1987)의 공손성 이론의 토대인 ‘체면’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를 제안해 보고, 한국어의 공손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공손성 유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3)이데(1982, 1989, 2006)는 일본 문화의 공손성을 논한 연구들에서 일본 문화의 공손성은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각 개인이 가진 사회적 의무, 역할을 인식하고 식별함으로써 공손성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한편 구(1990)은 중국의 공손성의 출발점이 공자(551B.C.-479B.C)의 ‘예’ 개념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성 이론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예’는 개인적인 위치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개인이 소속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Gu 1990:237-239).

3.1. 한국 사회에서 체면의 구성 요소

체면과 공손성 현상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체면’과 관련된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체면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서구 문화와 비서구 문화의 대립 구도 속에서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개인 대 공동체에 소속된 개인이라는 대조적인 사회문화로 설명되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도 다른 동양 문화권처럼 집단주의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을까? 물론 한국 사회가 서구 문화에 비하면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지만 점점 서구화되어 가고 있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한국 사회를 유교적인 문화나 전통적인 집단주의 문화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신수진 1998, 이현지 2004, 유민봉, 심형인 2013, 김경호 2020).¹⁴⁾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 사회는 완전한 서구의 개인주의와도 이와 대척점에 있는 일본의 집단주의와도,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와도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 사회는 집단 중에서도 ‘가족’을 중시한다고 보고, 사회학에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논의하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가족 중심주의’를 체면의 구성 요소로 가정한 후 언어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¹⁵⁾

(4) (동생을 괴롭히는 무리에게)

- 1 형: 우리 동생 건들지 마라. 앞으로 또 이러면 너 나한테 죽어.
- 2 동생: (뒤에서 보며 씩 웃는)

(5) (남자가 때리려는 여자의 팔을 낚아챌 때)

- 1 A: 당신 누구야? 비켜! 안 비켜? 왜 끼어들고 지랄이야?
- 2 B: 나 이 사람 남편입니다.
- 3 A: (짜려 보며) 쳇, 남편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 4 야, 뭐해? 경찰 불러!

(6) (자식이 잘못했을 때 SNS를 통한 공인의 사과)

뜯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국민들께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바른정당 당원들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죄드립니다.
바른정치 해보고자 시작한 지 얼마되지도 않아
당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14) 언어학적 논의인 Leech(2014:36)에서는 동양의 집단주의적 성향과 서양의 개인주의적 성향에 따른 대조적인 사회문화 특성을 고려해야 보편적인 공손성 이론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하였고, 한국어의 공손성 논의의 방향을 제안한 박소연(2017:14)에서도 한국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권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문화의 특성을 논의한 연구들의 주장은 이와 좀 다르다. 신수진(1998)에서는 실증적 조사 연구를 통해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으로 본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징으로서 60.8%가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을 보였고, 전체 사회의 집단주의적 정서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대다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개인의 행동 기준은 이기주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현지(2004)에서는 한국 사회가 전통 사회에서 가족을 지배했던 집단 중심주의의 관점은 약화되고, 서구의 근대적 이념인 개인 중심주의의 관점이 가족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15) 사용된 언어 자료들은 주로 드라마의 대사와 연구자가 주변에서 녹취한 자료, 공손성 관련 연구들에서 제시된 예문, 기사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여기서 일일이 그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대변인직과 부산시당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신제가를 하지 못한 저를 반성하겠습니다.
 아들 문제 뿐만 아니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도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를 깊이 수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4)와 (5)는 가족의 등장에 의해 일종의 ‘체면이 사는’ 상황을 보여준다. (4)에서 동생을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무리에게 형이 나타나 동생을 대신해 경고를 주자 동생은 흐뭇하게 씩 웃는 모습을 보인다. (5)에서 남편의 등장으로 여자 A는 싸움을 멈추게 되는데, 만약 이때 남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이었다면 자신의 관계를 내세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여자 A는 ‘당신이 무슨 상관이나면서’ 아랑곳없이 계속 싸움을 이어나갔을지도 모른다. (6)은 자식의 잘못에 대해 한 정치인이 SNS에 바로 사과문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정치인은 결국 아들 논란으로 정당의 대변인을 사퇴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유명인이나 공인이 대중에게 자식의 잘못을 사과하는 경우는 빈번히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는 자식에 의해 체면이 깎일 수도 있고 체면이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⁶⁾

(7) (코로나로 오랜만에 만난 교수와 제자가 인사를 나눈다.)

교수: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시고?
 제자: 네, 건강히 잘 계세요.
 교수: 다행이네. 한번 가 봐야 하는데.....
 제자: 사모님은... 좀 어떠세요?
 교수: 응. 그래도 나빠지진 않아. 잘 유지하고 있어. 운동도 하고.

(8) (학교에서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 A와 B는 교수이며 A가 더 연장자이다.)

A: 어머, 선생님. 안녕하셨어요.(마스크를 벗으며) 저 OOO이에요.
 B: 아이구, 세상에. 얼마 만이에요. 2년 됐나요?
 A: 아노..한 5년 되었을 거예요. 제가 미국 가기 전이니깐요.
 B: 벌써 그렇게 됐나요?
 (중략)
 B: 아이는 잘 크구요? 이제 몇 살이죠?
 A: 이제 일곱 살이요.
 B: 아이구...벌써요? 내년엔 학교 가겠네.. 이제 다 컸네요!
 A: (웃음) 하유..네, 이제 다 컸어요.

(9) (지도교수에게 대학원생이, 헤어지기 전에)

A: 선생님, 아인이는 잘 지내요?
 B: 응. 요즘 박사논문 쓰느라 바쁜데, 그래도 잘 지내. 개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
 A: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나 보네요. 아이는 아직이고요?
 B: 응. 학위 받고 나서 생각해 보려고 하나봐. 남편은 아이를 좋아해서 낳자고 하는데, 아인인 싫다고 하니.. 자기는 둘 다 할 자신이 없대.

16) 사전에서 부모 자식 간, 부부 간의 체면과 관련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 제 체면을 봐서라도 그 아이를 너
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이 아비 체면 좀 살려 주는 썸 치고 오늘 모임에 나오지 않으련? 송 씨는 양순이의
 타락을 곧바로 남편의 체면과 관련지었다.

(7), (8), (9)는 일상 대화에서 가족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친근감과 유대감을 표시함으로써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에 대한 안부 질문은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가족의 개인사를 묻는 일이므로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¹⁷⁾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거나 헤어질 때 상대방 가족의 안부를 묻는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이것은 가족의 일은 곧 나의 일이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 문화 내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상대방의 가족에게 관심을 표명한다는 것은 결국 대화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조화로운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10)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게스트: 아니, 형수님을 지난번에 병원에서 만났는데.....

박명수: (말을 가로 채며)다 좋아, 다 좋은데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구 했지?

게스트: (웃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형수님도 꽤 피부를 많이 건드리시던데...

박명수: 어어어! 그러지 말라니까!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구! 나만 해, 나만.

(11) (상담 프로그램에서)

여자: 저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저를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맨날 하는 그런 건요. 그치만 저의 부모님을 욕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네 부모는 왜 그러냐, 너네 부모는 상식이 없다,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식으로 얘기하는데.....(호느낌) 너무 분했어요.

상담사: 네..그러셨군요.

여자: 참다 참다가 그러는 너네 부모는 돈만 있으면 다냐. 무식하고, 바람 피고, 투기하고... 그래, 너네 집안 참 잘났다 그래 버렸죠.(생략)

패널: 맞아요. 내가 내 가족 욕하는 건 괜찮지만, 남이 하는 건 못 참지. 맞아요.

(10)은 사회자인 박명수와 게스트가 아슬아슬하게 갈등이 유발되어 협력적이지 못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11)은 부인이 남편과 싸우고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를 상담사에게 말하고 있고, 패널은 자신의 가족을 남이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며 공감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에 대한 비난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가족을 비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역시 한국 사회에서 개인은 가족 집단 내 구성원이자, 가족 구성원과 나는 동일시될 정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11)은 개인의 체면보다도 가족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가족 중심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3.2. 공손성의 유형

공손성을 파악하는 기존의 관점은 사회 규범(social norm)으로 보는 견해, 그라이스의 협력 원칙에 근거하여 대화 격률(maxim)로 보는 견해, 체면 유지 전략으로 보는 견해, 대화 계약(conversational contract)으로 보는 견해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Fraser 1990).

이 중에서 브라운과 레빈슨의 이론은 공손성을 ‘대화 전략’으로 보는 관점을 취한 것인데, 이러한 공손성의 전략적 관점만으로는 한국어에서 대화 참여자 간 위계 관계가 성립될 때 수행되는 공손성의

17) 영국인의 경우 연인이나 가족이 파티에 함께 오지 못했다고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그 이유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는 것이 ‘공손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Guy Cook 2003).

측면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위계는 나이, 사회적 지위, 향렬, 선, 후배 관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어휘와 경어법을 비롯한 문법적 공손 표지들을 형태적으로 사용하며 공손성을 표현한다.¹⁸⁾ 개인의 전략 차원보다 한국 사회가 이미 정해 놓은 사회 문화적 규범의 차원이 공손성의 형태에 있어서 우선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의 공손성 유형을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¹⁹⁾ 한국어에서 공손성은 인간관계의 수직 축과 수평적 관계의 축, 즉 관계의 위계성²⁰⁾ 유무에 따라 ‘관례적 공손성’과 ‘전략적 공손성’ 두 가지로 나뉜다. 관례적 공손성은 위계적 관계에서의 공손성으로, 경어법 사용처럼 언어 규범적인 것과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권력이 높은 사람에 대한 ‘사양과 겸양 표현’과 같은 관례적인 언어 사용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것은 개인의 체면에 속하는 영역이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상황마다 반복적이고 상투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공손성은 더 이상 브라운과 레빈슨의 개인적인 의사소통 전략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다.**

1) 관례적 공손성

관례적 공손성은 위계적 관계(수직적 관계)에서 화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 나이가 많거나 낫선 사람들(친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손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화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가 정해 둔 규범적이고 관습적인 표현과 대화 구조를 알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따를 때 공손성은 확보되고 원활한 인간관계가 유지된다. 아래에서 제시되는 관례적 공손성 표현들은 체면의 기준이 개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 문화 구조라는 외부에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기대되거나 이미 규정되어 있는 관례적, 규범적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공손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12) (집에 식사 초대를 하고)

- 1 신도: 목사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 2 목사: 아휴, 김 권사님, 뭘 이렇게 많이...상다리가 부러지겠습니다!
(웃으며) 저한테 더 살찌란 소리시지요?
- 3 신도: (웃으며) 목사님, 지금 딱 보기 좋으신데 뭘요.

(13) (떠날 때 인사)

- 1 신도: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모실게요.
- 2 목사: 권사님, 정말 오늘도 충분했어요. 감사합니다!

(12)는 50대의 목사와 70대의 신도(권사)의 대화이다. 이 대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목사의 사회적 지위가 신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도는 목사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직함에 ‘-님’을 붙

18) 이것은 경어법이 존재하는 일본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데(1982)에서는 일본어의 이러한 현상을 ‘분별성(discernment)’의 관점에서 보고 공손성을 분석하였다.

19) 이러한 분류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데(1989)에서는 일본어의 공손성을 분별적(discernment) 공손과 의지적 공손(Volition)으로 구분하였고, 이정복(2001)에서는 한국어 경어법의 용법을 ‘규범적 용법’과 ‘전략적 용법’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어 공손 표현을 연구한 허상희(2012)에서도 공손 표현의 용법을 화자의 의도가 적게 들어간 것을 ‘규범적 용법’으로 그에 비해 화자의 주관적 의도가 많이 작용한 것을 ‘전략적 용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한국어 공손성 연구에서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공손성 연구에서 여전히 브라운과 레빈슨(1987)의 이론적 틀만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20) 유민봉, 심형인(2013)은 한국사회의 문화를 공적자아인식, 집단 중시, 온정적 인간관계, 위계성 중시, 결과 중시라는 5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위계성은 공적 자아 인식과 집단 중시에서도 관여하는 성질이다.

여 ‘목사님’이라는 존대 호칭어와 ‘드시다’, ‘모시다’ 등의 존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사용하며, 경어법의 등급상 존대 어미를 사용한다. 또한 사회적 위계가 있는 상황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사회적 우위에 있는 상대방에게 하는 말인 ‘(12-1)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나 헤어질 때 ‘(13-1)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모실게요’와 같은 공손 상투어²¹⁾의 사용도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표현에 해당한다.

(14) (영화 개봉 후 배우 단체 인터뷰에서)

1 사회자: 이번 영화에서 너무 멋졌어요. 정말 최고인데요.

2 신인 배우: 아휴, 무슨요. 여기 훌륭한 선배님들이 이렇게 많으신데요.

3 사회자: 전혀 뒤지지 않으시던걸요. 팽팽한 긴장감이랄까요.

4 신인 배2)우: 정말 과찬이십니다. 저는 정말 선배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어요.

5 선배: 어떤지 계속 따라오더라.(웃음) 처음에는 못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집중력 있게 잘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6 신인배우: 선배님, 감사합니다.(칭찬에 대한 감사)-칭찬 언어 표현에 대한 감사이지, 본인이 잘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아님.

7 사회자: (웃으며) 참 겸손도 하셔라....뉘 집 아들이신지.

(15) (학부모들의 대화)

1 엄마1: 재이는 어쩔 그렇게 책을 잘 읽어요?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천재 아니에요? 천재? 너무 잘 읽더라고요. 우리 희준이랑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바로 뒤에 나오는데...

2 엄마2: 아이구, 무슨 천재는요. (웃으며) 잘못 보셨습니다~

(14)와 (15)는 모두 칭찬 화행의 응답 발화에서 선행 발화 내용을 거부하거나 축소하여 ‘겸양’을 표현함으로써 공손성을 유지하는 예이다. (14)는 영화 시사회 전 인터뷰라는 공적인 상황이면서 신인 배우와 선배 배우라는 사회적 위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때 신인 배우는 사회자의 연기 칭찬에 대해 (14-2), (14-4)에서 연달아 선행 발화의 내용을 거부하고 자기 능력을 축소하며 선배들의 공으로 돌리면서 겸양의 표현을 한다. (15)는 같은 학부모의 입장인 두 사람이 아이에 대해서 하는 대화인데, 칭찬의 대상이 화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인 자식인 경우라도 (14)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자는 상대방의 칭찬에 대해 거부를 하며 ‘겸양’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한국어에서 ‘칭찬-겸양’의 담화 구조는 공적이거나 위계 관계가 있을 때에만 관례적인 공손성 표현으로 작동한다.²²⁾

(16) 선배: 뭐 먹을까? 고기? 생선? 어떤 거 좋아해?

후배: 저는 다 좋아요. 없어서 못 먹죠 뭐.

선배: 그래도... 골라봐. 내일 니 생일이라 온 건데.

후배: (웃으며) 언니, 저는 정말 다 잘 먹어요. 아시면서... 먼저 언니 좋아하는 걸로 시키세요.

(17) ㄱ. (토크쇼에서) 글썄 우리 마누라가 아침에 밥상을 차려 줬어요! 세상에...

21)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누추한 곳까지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말은 일종의 ‘빈말 인사 표현’이다(강길호 1994). 그러나 문고에서는 박성철(2001)에서 지적하였듯이 ‘빈말’, ‘의례적 표현’과 같은 명명어는 가치중립적이지 않기에, 이러한 종류를 ‘공손 상투어’로 명명하였다. ‘공손 상투어’란 대화에서 공손성을 지니면서 마치 어휘처럼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면서 되풀이하여 출현하는 상황에서 빠짐 없이 사용되는 대화 상투어를 뜻한다(박성철 2001:226-229).

22) 윤정화(2014)는 상대방의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발화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상대방에게 양보하거나 자신의 노력이나 정성을 축소하여 응대, 자신을 낮추는 방식을 겸손 공손 표현이라고 하였다.

ㄴ. (학부모들끼리의 대화) 우리 딸은 전혀 그런 말 안 하던데..... 내일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16), (17)은 ‘사양’을 함으로써 공손성을 표현하는 예이다. (16)은 위계관계가 있는 선-후배 사이에서 후배는 자신의 생일이라서 선배가 식사를 사 준다고 해서 온 것이지만 메뉴를 고르는 자기 권리에 대해 사양한다.²³⁾ (17)은 김준걸(2020)의 주장으로 설명하자면, 이때 ‘우리’는 ‘내’의 공손한 표현이다. (17ㄱ)에서 남편은 자기 마누라를 “내 마누라”로, (17ㄴ)에서 엄마는 자기 딸을 “내 딸”로 부를 합당한 권리가 있기에 그 권리대로 언행을 할 수 있으나, 자기가 가진 권리를 사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을 목적으로 ‘우리 마누라’, ‘우리 딸’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김준걸(2020)에서 이러한 표현은 청자 혹은 제3자에 대한 예를 갖추어 말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²⁴⁾

2) 전략적 공손성

전략적 공손성은 수평적 관계에서 의사소통 전략으로서 사용되는 공손성을 의미하며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성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어에서 적극적 공손 전략과 소극적 공손 전략의 실현 예들을 보기로 하겠다.

(18) 가. (SNS에 음식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한 댓글) 우와아아아아, 정말 맛있겠어요! 여기 어디예요?

나. (군에서 제대한 친구에게, 반가워하며) 야! 이 새끼 오랜만이네! 살아 있었구나!

최근 적극적 공손 전략 표현이 가장 활발하게 표현되고 있는 매체는 SNS이다. 사람들은 (18가)처럼 댓글에 과장하여 공감이나 관심을 표현하여 자신이 상대방에게 우호적임을 드러낸다. 만약 SNS에 올린 게시물에 댓글이 전혀 달리지 않거나 비우호적인 댓글이 달린다면, 게시자의 적극적 체면은 손상될 수 있다. (18나)는 주로 젊은 남성 사이에서 “야! 이 새끼” 등의 비속어나 별명, 욕설, 농담 등을 사용하여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소극적 공손 전략은 상대방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표현들과 관련된다. 이 전략은 특히 공적 관계 혹은 사적 관계라고 하더라도 거리감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말해야 할 때 더욱 활성화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극적 공손 전략은 예의나 정중함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관계적 공손성과 유사해 보이나, 소극적 공손 전략은 개인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며, 화자가 그러한 전략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형되거나 버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 가. (유튜버의 마지막 멘트) 저기...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실래요?

나. 1 A: 이번 주 토요일에 뭐해?

2 B: 음, 아직까진 별 거 없어.

3 A: 그럼, 안산에 같이 가지 않을래?

4 B: 좋아! 몇 시?

23) 맹자는 ‘예’란 “사양지심이 근본으로 겸손히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취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예를 갖추는 것은 자기에게 이로운 것임에도 겸손히 사양하는, 혹은 자기의 권리임에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준걸 2020).

24) ‘우리 마누라’와 같은 표현에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친밀감 표시, 공동체 표시, 지칭 대상의 내집단과의 관련성 표시, 서열 관계 표시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우리’의 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접어 두고, 김준걸(2020)에서 주장한 ‘내’의 공손한 표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사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을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19가)는 유튜버들이 맨 마지막에 흔히 하는 말로 구독자들에게 부탁하는 발화이다. 이 유튜버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 상당히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눈에 띈다. “저기…”라는 주저 표현, ‘괜찮으시다면’이라는 울타리 표현(hedge)의 사용이나 ‘-해 주실래요?’라는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방식의 ‘부탁’ 표현은 시청자들의 소극적 체면을 살려 주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다. (19나)는 대화 구조상에서 주 화행인 ‘제안’이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비 단계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보호하는 전략이다. 화자는 (19나)-3의 ‘영화를 보러 가자’는 제안을 대화의 도입부에서 바로 하지 않고, “(19나)-1 이번 주 토요일에 뭐해?”와 같은 예비 단계를 수행한다. 이러한 발화는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에게 뒤에 올 ‘제안’을 예측하게 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며, 만약 상대방이 거절의 의도를 지녔을 때 이 단계에서 ‘미안해. 이번 주엔 선약이 있어서.’라는 대답도 가능하게 한다. 이는 A가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여 서로의 소극적 체면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이상, 한국어 공손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공손성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ㄱ. 관례적 공손성 : 위계적 관계에서의 공손성

예) 존대 호칭어, 경어법, 존대 동사, 공손상투어, 겸양, 사양 표현의 사용

ㄴ. 전략적 공손성: 수평적 관계에서의 공손성

예) 적극적 공손성, 소극적 공손성

4. 결론: 공손성 이론의 언어교육에의 적용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겁고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각종 강연과 책들이 넘쳐나는 이때에, 고등학교 화법 교육의 무용성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이재원 2009). 그 이유에 대하여 국어 교사들은 ‘화법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시시한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내신 평가에 화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고(김윤정, 권순희 2015), 백승주(2017)에서는 화용의 원리들을 도덕적, 규범적인 것으로 국어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교사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언어 이론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본 것처럼 공손성 이론의 경우, 사람들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 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문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언어 교육에서 공손성 이론이 무엇을 담당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진다. 공손성은 화법 교육, 의사소통 교육에서 그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 간의 문화 파악뿐 아니라, 세대 간, 젠더 간, 사회 조직 간 언어에 드러나는 문화의 특성을 공손성 이론이라는 도구를 빌려 분석하고 설명할 때, 문화라는 추상적인 것을 언어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공손성 이론과 관련하여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손성 이론을 화법 교육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손성(politeness)’의 개념을 일상어의 ‘공손’의 의미와 구분하여 예의범절이나 사회 규범의 차원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공손성이란 의사소통의 원리 중 하나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 것과 관련된 언어 행위를 말한다는 점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화법 교육에서 연장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과 어떠한 방식의 언어사용을 하는 것이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기에 좋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공손성은 화용적인 현상이므로 고정된 표현에 의해 공손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표현들이 선택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어떠한 어휘, 문법, 담화 차원에서 공손성을 표현하고 있는지 실제 대화 자료를 통해 관찰해 보고, 같은 화행의 수행이 상황 맥락이 달라짐에 따라 공손성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를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감사’나 ‘찬사’처럼 언어 행위 그 자체가 공손하거나 표현이 정중하다고 해서 반드시 공손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며, ‘조롱’이나 ‘비난’처럼 언어 행위 그 자체가 불손하다고 해서 반드시 공손성을 실현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실제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서구의 공손성과 한국, 일본, 중국 등 비서구권 국가의 공손성은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자신이 관심이 있는 나라의 영화를 찾아 보고 공손성을 분석해 볼 수 있다.

○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젊은 남성 사이에서 “암마! 이 새끼” 등의 비속어나 별명, 욕설, 농담 등을 사용하여 서로에 대해 친밀감을 표현하며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공손성은 언어 행위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 참여자들의 친밀감이나 사회적 지위와 권한, 사건의 부담감 등 상황 맥락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 상호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공손성’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대화의 원리인 공손성 원리가 나오게 된 것은 그라이스의 협력의 원리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수많은 실제 대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돌이켜 보자면, 언어 이론은 규범이 될 수 없으며, 실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정하고 있는 일종의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은 언제든지 실제 자료에 의해 설명력이 있는 쪽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언어 교육에서 언어 이론의 역할은 도덕적이거나 규범적인 잣대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언어생활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도구로 쓰여야 한다. 자신과 타인, 내가 속한 사회의 언어 사용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는 도구로 공손성 이론이 제시될 때, 화법 교육에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생략)